

◆ 會員社 動靜 ◆

LG産電(株), 금성계전, 금성기전 흡수합병

LG産電(株)(代表:李喜鍾)는 금성계전, 금성기전을 오는 9월 1일자로 흡수합병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병은 LG그룹이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는 '21세기형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실제혁신 방안' 중 사업문화단위(CU) 중심의 자율경영체제 강화 차원에서 결정 되었다.

LG산전은 양사를 합병함으로써 자본금 1,018억원에 '95년도 1조 5천억원의 외형을 달성하게 되면 창원·청주·천안·주안·오산의 5개 공장과 북경·태국 등 12개 해외 법인 및 해외지사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LG산전은 국내 최대의 산업용 전기·전자 업체의 면모에서 일신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도약할 전기를 마련했다.

제2의 도약선언이라는 의미로 요약되는 3사의 합병은 사업구조를 전문화하고 내부자원을 고도화하는 등 생산성과 경쟁력 측면에서의 경영시너지 창출을 통해 세계화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LG산전의 사업구조는 고객, 기술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사업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전력기기, 빌딩설비, 제어기기, 자동화시스템, 서비스 산업기기 등 5개 사업 Group으로 나누어 전개키로 하였다. 또한 사업Group에는 사업의 특성과 기술, 고객의 관점에서 사업단위인 사업Unit를 두었으며 16개의 사업Unit가 각각의 사업특성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세계최고 수준의 초일류화를 철저히 추구해가는 체제로 정비하였다.

조직운영 면에서는 종전의 사업부장에 해당되는 사업Unit장에게 사업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이양하여 사업의 책임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실·팀제를 도입하여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했으며 발탁인사의 문호도 훨씬 넓혔다.

향후, LG산전은 자동화분야에서 축적해 온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공장 자동화(FA)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그동안 글로벌 제품으로 역점을 두어온 엘리베이터 등의 설비사업은 해외진출과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에너지 분야에도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매출목표 5조원의 달성을 포함한 세계화 전략을 오는 2000년안에 실현시킨다는 구상이다.

新韓電機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변압기 전문제조업체인 新韓電機工業(株)(代表:朴吉相)가 ISO 9002를 획득, 전기공업계의 기록을 그대로 입증했다.

신한전기는 ISO 팀 4명과 각부서의 키맨을 주축으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전 사원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인 열과 성의의 결과로 한국능률협회 품질인증센터로부터 변압기에 대한 ISO 9002인증을 획득하여 전기공업계의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중견기업임을 다시한번 입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미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신한전기는 국제화, 세계화를 겨냥하여 오래전부터 품질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굳어진 상태로 KS는 물론 품질경영 1등급을 보유하고 있는것이 그 실 예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신한전기는 지난 92년 공인 인증시험 면제업체로 지정받았으며 전국 Q.C경영대회에서의 각종 수상 및 신제품 개발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내염형 일단접지 주상변압기 붕상개발 합격, 지상설치형 변압기 개발합격, 자기진단형 변압기 개발합격등 지침없는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번 ISO 9002의 추진은 단순히 인증획득만이 아닌 고객위주의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객관적 제품의 신뢰성확보 및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증대를 이룩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ISO 9002의 인증획득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것에 불과하다」라고 표명하는 최고 경영자의 품질에 대한 각오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 앞으로 전기공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LG電線(株), 근거리통신망용 UTP케이블 개발

LG電線(株)(代表: 權炆久)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Mbps급 LAN(근거리통신망)용 UTP케이블을 개발하고 美國 UL(미 보험업자 연구소)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다.

UTP(無編造)케이블은 금융기관, 대학, 병원 등 각 분야에서 추진중인 근거리통신망(LAN) 구축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AN 네트워킹용으로는 동축케이블을 많이 사용해 왔는데 이 케이블은 부피가 크고 대용량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 점차 UTP케이블로 대체되고 있다.

100Mbps급 UTP케이블은 최근 급진전 되고 있는 정보 고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LG전선이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것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10Mbps급 UTP케이블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고 10배 이상 빠르다. 이 케이블은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화선을 데이터 네트워크에 적용시켜 부피가 작고 시공이 간편해 이동이나 확장이 자유로운 잇점이 있다.

LG전선은 최근 MUX용량이 대형화 추세에 있고 네트워킹이 주로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폴리에틸렌 절연체를 난연 처리함으로써 케이블로 인한 화재의 확산과 유독성 가스의 발산을 최소화 할수있으며, 그동안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던 100Mbps급 UTP케이블을 국산화하고 이 달말부터 본격적인 국내 시장 공급에 나설 계획이어서 LAN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들은 네트워킹의 대용량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大延電子(株), ISO 9002 인증 획득

전력용 보호 계전기 전문생산업체인 大延電子(株)(代表: 鄭冀浩)는 한국품질보증원(KQA)으로부터 ISO 9002 / KSA 9002 품질보증 시스템 인증을 획득 하였다.

본 인증은 대연전자(주)에서 생산되는 전 제품(누전경보기, 정지형 계전기, 유도형 계전기, 지시전기계기, 계기용 변성기, 전력용 변환기)에 해당되는 ISO 9002 인증으로서 이는 전력용 보호 계전기 제조업체로는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게 된것이다.

이로서 대연전자는 전력용 보호계전기 생산업체로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보증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 명실 상부한 품질우위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종합 전력보호 시스템의 신뢰성을 더 한층 확립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공급 할것이며, 향후 전기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해외 진출에도 주력 일본, 말레이시아등에 수출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동남아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려 국제적 기반을 구축, 제품의 세계화로 다변화된 국제 경제에 대비하여 본 ISO 9002 인증 획득으로 체계화된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 최고 경영자로 부터 일선 생산 라인 사원에 이르기 까지 전사적 품질 경영으로 국내 전력보호 계전기 시장에서 외국 선진국 제품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수입을 억제함을 물론 수출증대를 이룩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株)코리아스엔, 리액터식 節電 장치 개발

기술개발전문업체인 (株)코리아스엔(代表 : 鄭榮春)이 전력부하를 대폭 경감시킬수있는 절전장치를 개발했다.

동사는 에너지효율제고및 발전소 전력부하경감을 위해 2년간 3억원을 들여 이제품을 개발, 라이선스업체를 통해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마이저란 명칭의 이 제품은 공장 빌딩 가정의 수전반 접속시 모터동력 10~25%, 조명부문 15~20% 절전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험결과 나타났다.

전력부하정도에 따라 입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역률이 나쁜 교류전기기기의 경우 최고 30%까지 역률을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다. 전기노이즈 제거및 교류파형의 완화효과도 있어 전기제품의 수명도 대폭연장시키는 것으로 검증됐다.

입력과 출력부하를 磁氣 방식으로 조화, 위상제어방식 인버터방식등 종래 절전방식의 결점을 해소한 세계최초의 리액터식 절전장치로 일본에만 연간 1천5백만달러정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며 제품의 세계적 보급을 위해 미국등 12개국에 국제특허를 출원중이며 국내생산업체를 선정 한후 하반기부터 국내의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